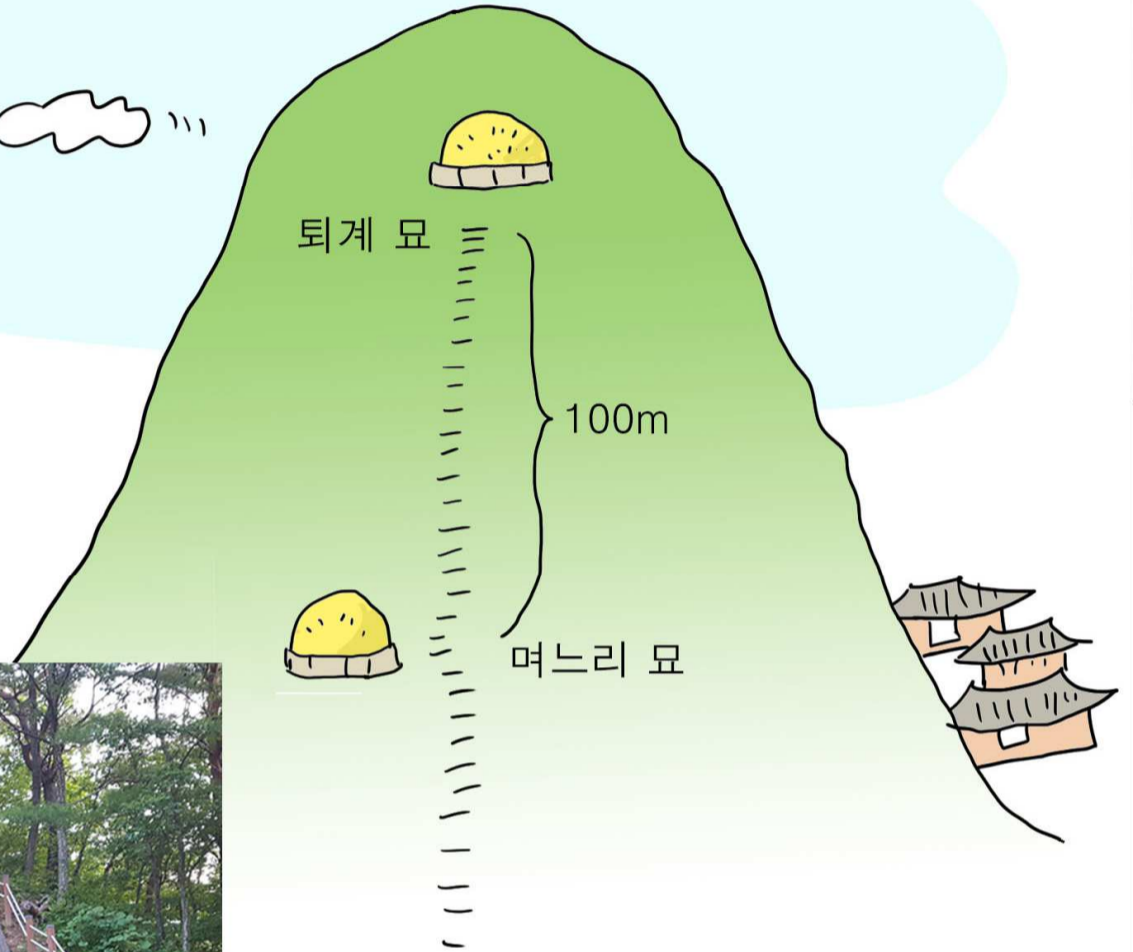


# 47. 퇴계선생의 가족, 이웃, 제자 사랑

## (1) 며느리 사랑

안동의 토계리 건지산에는 퇴계의 묘가 있다.

그 100m 아래에는 맏며느리인 봉화 금씨의 묘가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있게 된 것일까?



가족간에는 당연하다고 여길 일에도 퇴계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곧 시아버님 생신인데 따뜻한 버선을 만들어 드려야지.



고맙다. 옮겨울은 며느리 덕에 발이 고생하지 않겠구나.









퇴계는 순수 의학책을 뒤져 며느리의 증상에 맞는 처방을 찾아 약을 지어 보냈다.

이렇듯 무엇을 받으면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반드시 답례를 하고, 며느리의 건강도 살뜰히 챙기니



만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따랐다.

퇴계가 세상을 뜨자 장례기간 중에 만며느리도 세상을 뜨고 만다.



그때 유언하기를...

내 생전 시아버님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많았으니 죽어서라도 정성껏 모실 수 있게 시아버님 묘소 가까운 곳에 묻어주세요.

이리하여 퇴계의 묘소 아래에 묻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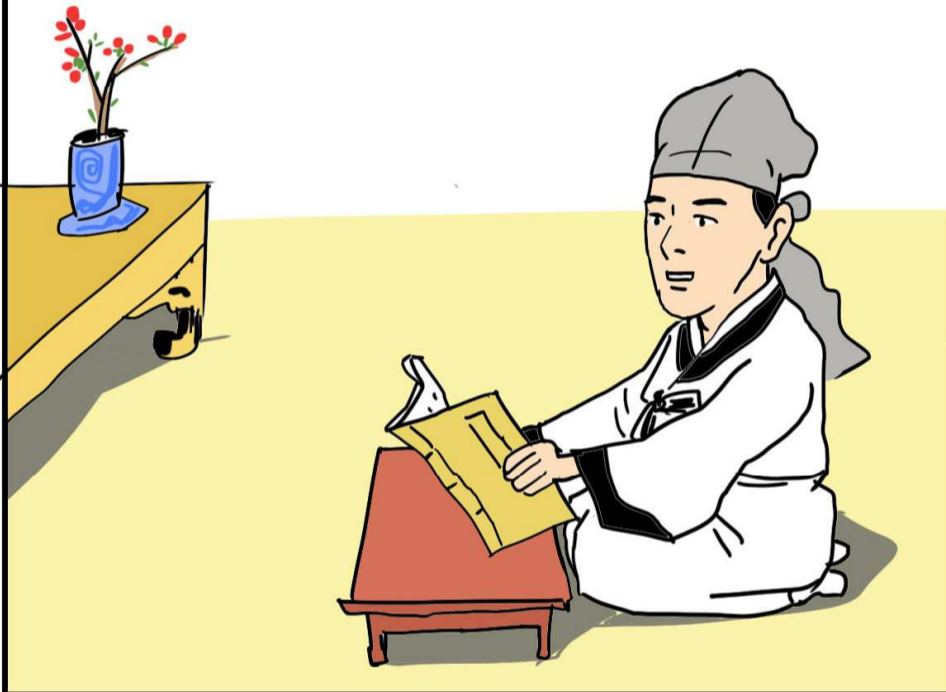




(2) 이웃 사랑 : 논을 밭으로 바꾼 배려



퇴계는 젊어서 집에서 학문을 하고



여가에는 농사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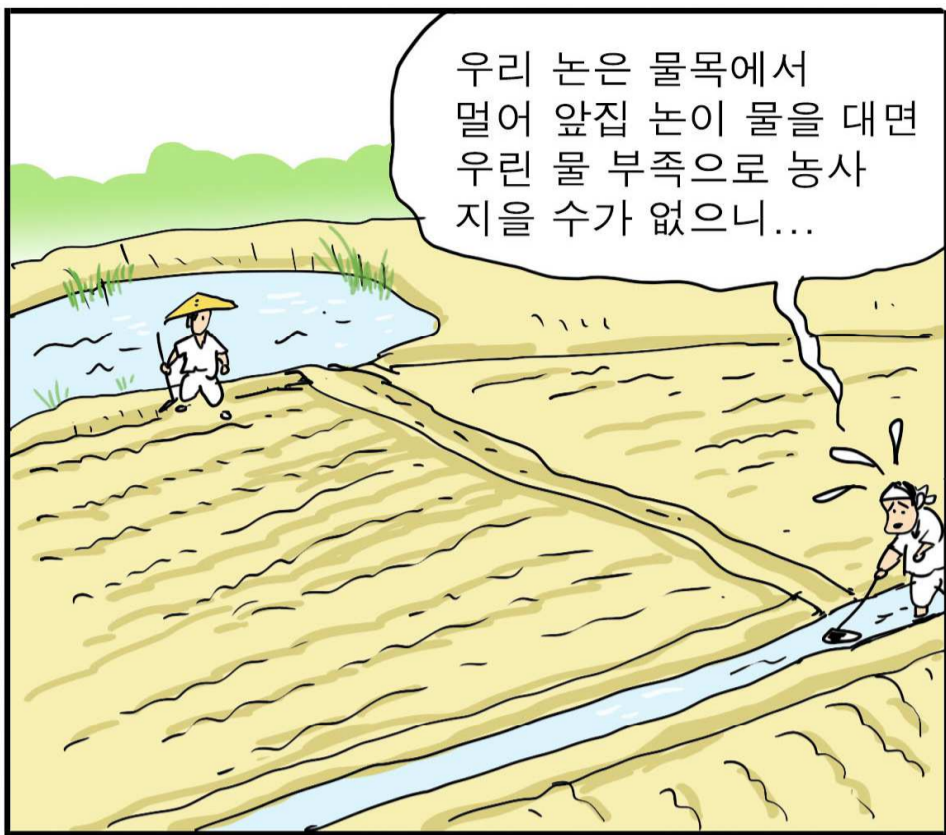
우리 논은 물목이  
가까워 가뭄에도  
물 걱정 안해서 좋아!



가까워서  
좋겠네  
좋겠어.







우리 논은 물목에서  
멀어 앞집 논이 물을 대면  
우린 물 부족으로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



음, 물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는 체  
한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이웃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논에 물을 안대야  
저 집 논이 산다고하니...



됐네, 물이 필요 없는  
밭농사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되는 걸!



퇴계는 그날로 자기 논을 밭으로 바꾸어 버렸다.

물꼬를 막고  
흙을 돋우고~~

자 이제 물을  
맘대로 쓰셔도 되요.

감사합니다.

퇴계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사정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덕분에 올해 논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우리 밭에도 작물이  
잘되서 걱정없게  
되었답니다.



(3) 제자의 부부화목을 위하여(69세)

















